

韓國老年學研究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2002, Vol. 11, 43-61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광희 · 한혜경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요약) 본 논문은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었다. 학력이 낮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203명의 노인들에게 성별, 연령, 결혼상태 및 교육수준의 네 가지 인구학적 정보를 비롯하여 주관적 건강 및 경제상태의 지각, 사회적 접촉의 정도, 자기존재가치의 지각, 일상생활수행능력(ADL), 및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의 여섯 가지 특성 그리고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질문을 하였다. 인구학적 정보 및 여섯 가지 특성들이 모두 생활만족도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회귀분석에서는 주관적 건강 및 경제상태의 지각, 자기존재가치의 지각, ADL 그리고 IADL의 다섯 가지만 농촌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해주는 의미있는 요인들로 밝혀졌으며, 또 이들은 전체 변량의 53%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자기존재가치의 지각이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Key Words: 농촌노인, 생활만족도, 일상생활수행능력, 자기존재가치,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506-459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 신동 410번지 박광희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자의 e-mail 주소는 kwanghepark@hanmail.net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게 되면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이 약화되면서 또 정년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역할이나 지위가 변화되면서 누구에게나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달라질 가능성이 커진다(Honahan, Honahan, & Wonacott, 2001; Zigler & Reid, 1993). 이 시기에 해당된 개인은 자신의 과거 및 현재의 상황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즉 노화과정에 의해서 자신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면서 적응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개인의 삶의 질 또는 만족수준이 좌우된다. 이와 같은 노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그들의 심리적인 안녕(well-being)이나 복지(welfare) 상태, 또는 이를 보다 쉽게 표현할 때 그들의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가능하다 (김태현, 1994).

생활만족도의 개념은 Neugarten, Havighurst, 그리고 Tobin(1961)이 은퇴를 한 이후노인들의 생활양식을 검증하기 위한 종속측정치로 이용되면서, 다시 말하면, 은퇴 이후 노인들의 생활양식이 사회적인 활동 또는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어한다는 활동이론(activity theory)과 사회참여로부터 유리된 상태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여생을 관조한다는 유리설(disengagement theory)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이 더 합당한가를 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용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생활만족도는 노년기의 적응이나 성공적인 노화 및 정신건강의 지표로 간주되어 왔다 (김태현, 1994).

Neugarten 등(1961)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자신의 생활을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 또는 행복하다고 지각하는가의 평가를 생활만족도의 측정치라고 언급했는데, 이를 토대로 생활만족도는 최소한 다음의 다섯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그 다섯 가지 요소들이란 현재의 생활 또는 활동으로부터 얻는 만족의 정도, 자신의 인생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의 정도, 자신이 꿈꾸어왔던 인생의 목적을 어느 정도 성취했다고 보는가의 정도, 자신의 상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살아오는가의 정도, 그리고 평소에 어느 정도 낙관적인 태도와 기분을 유지하면서 살아오는가의 정도라고 하면서, Neugarten 등(1961)은 그러한 내용을 측정할 수

농촌 노인의 생활만족도

있는 도구를 개발했다. 결국 그들은 생활만족도를 총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재정적인 안정이나 신체적 건강, 그리고 사회적 교제 등을 포함시킨 상태에서 다섯 개의 요인 및 20개의 문항들로 구성된 척도(LSIA: Life Satisfaction Index A)를 개발했으며, 나중에는 이를 몇 차례 수정·보완해나갔다 (Neugarten 등, 1961; Palmore & Kivett, 1977).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는 연구들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데, 거의 대부분 생의 후반기에 해당된 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다. 연구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생활만족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 내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연령이나 성별, 건강상태, 교육수준, 경제상태, 결혼상태, 사회활동 등이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해주고 있는 주요한 요인들이라고 밝혀지고 있다.

우선 성별과 연령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Spreitzer와 Snyder(1974) 그리고 신은영(1993)은 남성 노인들이 여성들보다 생활만족도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성별의 차이도 다른 방법으로 연구할 때 달라지기도 했다. 예를 들면, 전자의 연구들처럼 횡단적인 연구를 시도한 것과는 달리 동일한 연구대상자들을 종단적인 방법으로 연구한 Palmore와 Kivett(1977)은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는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수준이나 재정적 상태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Spreitzer & Snyder, 1974).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에 대한 적응이 더 쉬운데, 이는 공동체 내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더 잘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김재돈·남철현, 1997; 신은영, 1993). 노년기에 있어서 경제적 안정과 보장은 노인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뿐 아니라 노인의 지위와 자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까지 해주므로 노년기의 삶을 영위하고 생활만족도 수준을 높이는데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장인협·최성재, 1987), 특히 객관적인 수입의 정도보다는 자신이 지각하는 경제적 만족수준이 생활만족도에 더 관계가 높은 요인

으로 보인다 (신은영, 1993). 역시 교육이나 경제적 수준도 성별에 관계되면서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남성들의 교육수준은 그들의 생활만족도 수준과 관계가 높았던 반면, 여성들의 교육수준은 생활만족도 수준과 관계가 나타나지 않기도 했다 (Markides & Krause, 1979).

생활만족도는 건강상태와도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건강상태가 더 좋은 편이라고 반응한 비율이 높았다 (김재돈 · 남철현, 1997). 그렇지만, 건강상태는 신체기능을 통한 객관적인 지수보다도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생활만족도에 더 관계가 높은 변인으로 드러났다 (신은영, 1993; Paltmore & Kivett, 1977). 아울러 80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상대로 한 연구에 의하면, 주관적인 건강상태 뿐만 아니라 평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가의 여부 및 사회적 관계나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 등도 연구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고 있었다 (Holahan 등, 2001).

사회적 관계 유지의 여부나 정도는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 공식적 지원자들과의 접촉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복지나 건강에도움이 된다 (성규탁, 1991). 그 중 하나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회적 지원자로 배우자의 유무가 노인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고 있다. 즉 배우자를 상실한 후 야기되는 고립이 노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Bock & Webber, 1972),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의 수준이 더 높았다 (신은영, 1993).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노인들의 만족도가 달라지는 또 다른 사항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가치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는가의 지각이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자신을 이해해준다고 지각하는가, 자녀들로부터 대우를 받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가, 자녀들이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편인가의 정도에 따라서 노인들의 갈등이 더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Youn & Song, 1992).

또 신체 및 정신적 기능의 쇠퇴, 경제적 조건의 악화 등은 노화과정과 관련된 공통된 특성이지만, 우리 문화권에서는 1960년대 이후부

농촌 노인의 생활만족도

터 빠르게 전개된 산업화의 영향으로 농촌에 사는 노인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파생되었다. 예를 들면,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다 보니 성인자녀와 함께 사는 농촌노인들의 비율이 점점 낮아져갔으며, 또 자녀들도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기 어려워져 농촌노인들은 도시노인들에 비하여 소외감을 더 많이 경험해야 했다 (김태현, 199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를 비교해보고자 했다. 현재 사회적 활동의 일부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신은영, 1993; Holahan 등, 2001),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주로 농촌에서 농업에 관계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다가 고령인 점을 토대로 일의 유무는 생활만족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곧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인들의 인구학적 정보들을 비롯하여 건강이나 경제 상태의 지각,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정도, 자기존재가치, 및 사회적 접촉의 정도 등 농촌노인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 그와 같은 특성들에 따라서 그들의 생활만족이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변인들이 생활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203명이었다. 그들의 연령은 평균 72.33세($SD = 5.82$; $Range = 65-93$)이었다. 연구대상자들 중에서 여성의 비율은 노인인구의 성비 특성을 반영하고 있듯이 65.0%($n = 13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성들의 나이는 평균 72.13세($SD = 6.04$) 또 남성들의 나이는 평균 71.70세($SD = 5.42$)이었는데, 남녀간의 연령 차이는 없었다 ($F < 1$). 연구대상자들 가운데 80세 이상의 비율의 11.3%($n = 23$)이었는데, 남

성의 12.7%($n = 9$)와 여성의 10.6%($n = 14$)에 해당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교육수준을 보면, 학교나 서당에 전혀 다닌 적이 없는 분들이 전체의 59.1%($n = 120$)를 차지한 반면, 중졸 이상인 분들이 5.1%($n = 12$)에 불과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연구대상자 모두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지녔는데, 전체 여성의 78.0%이상(132명 중 103명)이 학교나 서당에 다닌 적이 전혀 없었다. 배우자가 생존한 노인들의 비율은 남녀간의 차이가 심했는데 ($\chi^2 = 45.76$, $df = 1$, $p < .001$), 여성들의 39.4%(132명 중 52명) 그리고 남성들의 88.7%(71명 중 62명)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리고 홀로 살고 계신 노인들의 비율은 25.1% 정도였는데, 남성의 5.6%(71명 중 4명)와 여성의 35.6%(132명 중 47명)에 해당되었다. 또 연구대상자들 중에서 현재 농사일에 종사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0%가 넘었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등을 묻는 인구학적 정보를 비롯하여 주관적 건강상태와 주관적 건강상태의 지각을 묻는 문항, 그리고 일상생활수행능력,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자기존재가치의 지각, 사회적 접촉, 생활만족 수준을 평가하는 문항들이 포함된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인구학적 정보 중에서 결혼상태는 배우자 유무로만 평가했으며, 교육수준은 여섯 개의 항목으로 평가했다 (무학 = 1, 서당이나 초등학교 중퇴 = 2, 초등학교 졸업 = 3, 중학교 졸업 = 4, 고등학교 졸업 = 5, 2년제 이상 대학 취학 = 6).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와 주관적 경제상태의 지각은 모두 Likert식 5점 척도의 단일 문항으로 평가했다. 건강의 경우는 “매우 좋다(= 5)”로부터 “매우 좋지 않다 또는 아픈 곳이 많다(= 1)”까지로 그리고 경제의 경우는 “매우 좋다(= 5)”로부터 “매우 좋지 않다(= 1)”까지의 반응형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나머지 다섯 가지 척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앞의 네 가지는 마지막에 소개된 생활만족 수준을 종속변인으로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예언변인들로 이용된 것이다.

농촌 노인의 생활만족도

일상생활수행능력 척도. 일상생활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척도는 집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능력이 어느 정도 독립적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일상생활의 기본 영역은 “목욕하기,”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의자에 앉거나 의자에서 일어나기,” “외출하기,” “화장실 이용하기”의 여섯 가지 내용이었는데, 이는 정경희 등(1998)이 사용하였던 내용과 동일했다.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측정기준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전혀 어려움이 없이 그러한 행위가 가능한지를 “예”와 “아니오”로 답하게 했다.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0점 그리고 없는 경우는 1점으로 채점했기 때문에 ADL의 점수범위는 0-6점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더 뛰어난 것을 의미한다.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척도.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척도는 집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영역 이외에 좀 더 복잡한 적응능력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기능을 독립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단적 일상생활의 영역은 “일상용품이나 약 등을 구입하는 행위,” “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행위,” 그리고 “청소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의 네 가지 내용이었으며, 이는 정경희 등(1998)이 사용하였던 내용과 동일했다. 측정기준은 상기의 ADL의 것과 동일했기 때문에 IADL의 점수범위는 0-4점이었으며,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더 뛰어난 것을 의미한다.

자기존재가치의 지각. 자기존재가치의 지각을 측정하는 도구는 “젊은 사람들로 존경을 받는다,” “가족으로부터 대우를 잘 받고 있다,” 그리고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참여하는 편이다”의 세 개의 문항으로 구성했는데, 이는 김재돈과 남철현(1997)에서 응용한 것이었다. 문항에 대한 반응 형태는 “매우 그렇다 (= 4),” “그렇다 (= 3),” “그렇지 않다 (= 2),”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다 (= 1)”의 4점 척

도이었다. 총점의 범위는 3-1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들이 자기의 존재가치를 더 분명하게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보인 자기존재가치 척도의 내적 일치도 α 는 .68($n = 203$)이었다.

사회적 접촉.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적 접촉은 자녀와의 관계 및 이웃이나 친지들과의 관계를 묻는 것으로 한정했는데, 그 중에서도 자녀와의 접촉에 대한 비중을 더 높게 설정했다. 그러한 이유로 세 가지 문항으로 질문했는데, “따로 살고 있는 자녀와 어느 정도 자주 만나는가?”에 대한 반응은 1-5점으로 [1년에 1회 정도나 그 이하 (= 1), 1년에 1-3회 정도 (= 2), 1년에 4-12회 (= 3), 월 2-3회 정도 (= 4), 최소 주 1회 이상 (= 5)], “따로 살고 있는 자녀와 어느 정도 자주 연락을 취하는가?”에 대한 반응은 1-4점으로 [월 1회 이하 (= 1), 월 2-4회 (= 2), 주 2-3회 (= 3), 주 4회 이상 (= 4)], 그리고 “친구나 이웃과 어느 정도 자주 만나는가?”에 대한 반응은 1-5점으로 [전혀 없다 (= 1), 월 3회 이하 (= 2), 주 1회 정도 (= 3), 주 2-4회 (= 4), 주 5회 이상 (= 5)] 하도록 하였다. 곧 사회적 접촉의 점수범위는 3-1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나 이웃들과의 접촉이 더 빈번함을 의미한다.

생활만족도 척도. 생활만족도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는 원래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Neugarten 등(1961)의 “Life Satisfaction Index A”를 이가옥 등(1994)이 번역하면서 12개 문항으로 선정된 것을 사용했다. 열 두 문항으로 선정된 그 척도는 나중에 김재돈·남철현(1997)에서도 사용되었는데, 문항들의 절반은 긍정적인 진술문으로 그리고 다른 절반은 부정적인 진술문으로 되어있었다. 문항들의 반응형태는 3점 척도이었는데, 부정적인 진술문의 경우 채점을 역으로 했다.

즉 “내 인생을 회고해 보면 정말 행복하다,” “요즈음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들이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항상 흥미를 느낀다,” “미래에 대해 무언가 기쁘고 흥미 있는 일이 일어나리라 기대된다,” “인생에 많은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지금도 바쁘고 가치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6개의 긍정적인 진술문에는 “그렇다(= 2)”, “그저 그렇다(= 1)”, 그리고 “그렇지 않다(= 0)”의 반응형태를 취하도록

농촌 노인의 생활만족도

하는 반면, “나는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한 것 같다,” “가능한 일이라면, 내 과거를 바꾸었으면 좋겠다,” “나는 자주 지루하고 따분하다,” “지치고 늙었다고 생각한다,” “요즘 들어서 사소한 일들이 나를 더욱 괴롭힌다,” 그리고 “조그만 일이 생겨도 쉽게 화가 난다”는 6개의 부정적인 진술문에는 “그렇다(= 0)”, “그저 그렇다(= 1)”, 그리고 “그렇지 않다(= 2)”의 반응형태를 취하도록 했다. 그러므로 생활만족도 척도의 총점의 범위는 0-24점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생활만족도 척도의 내적 일치도 α 는 .85($n = 203$)이었다.

연구절차

행정구역상으로는 광역시에 속하더라도 농촌지역, 즉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223명의 노인들 중에서 설문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인 20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술했지만 연구대상자들의 대다수는 인지기능의 장애를 보이지는 않았더라도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서 설문지 문항을 읽을 수가 없었으며, 또 글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시각기능의 약화로 설문지를 스스로 읽기가 곤란한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의 첫 번째 저자가 연구대상자를 방문하여 문항내용을 하나씩 읽고 설명해주면서 노인들의 답변 내용을 설문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자료수집이 이루어진 시기는 2000년 가을이었다.

결 과

본 연구의 자료는 다음의 세 가지 면에서 분석되었다. 먼저 주관적 건강상태의 지각을 비롯하여 주관적 경제상태의 지각,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자기존재가치의 지각, 및 사회적 접촉수준의 여섯 가지 영역이 성별이나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배우자 유무의 네 가지 인구학적 정보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나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둘째는 생활만족도 수준이 네 가지 인구학적 정보 및 상기의 여섯 가지 측정치와 어떠한 차이나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의 열 가지 변인을 토대로 연구대상자들의 생활만족도 수준을 설명해주는 요인을 찾아내는 회귀분석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농촌노인의 특성

연구대상자들은 자신들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비교적 좋지 않다고 지각했다. 즉 “매우 좋다” 및 “좋다”라고 반응한 비율은 각각 2.5% ($n = 5$)와 9.9% ($n = 20$)에 해당된 반면, “좋지 않다”와 “매우 좋지 않다”고 지각한 비율은 각각 17.7% ($n = 36$)와 61.6% ($n = 125$)에 해당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M = 2.07$, $SD = 1.23$, $n = 71$)이 여성 ($M = 1.56$, $SD = 1.01$, $n = 132$)보다 건강상태가 더 좋다고 지각했던 반면 ($F_{1,201} = 10.00$, $p < .01$),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F < 1$). 또 주관적 건강상태의 지각은 연령과의 상관이 매우 낮았던 반면 ($r = -.02$, $n.s.$, $n = 203$), 교육수준과는 정적으로 유의있는 상관을 보였다 ($r = .22$, $p < .01$, $n = 203$).

연구대상자들의 주관적 경제상태에 대한 반응에서는 좋은 편이라고 지각한 비율[“매우 좋다” 3.0% ($n = 6$), “좋다” 7.9% ($n = 16$)]보다도 좋지 않은 편이라고 지각한 비율[“좋지 않다” 13.8% ($n = 28$), “매우 좋지 않다” 21.7% ($n = 44$)]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M = 2.80$, $SD = 0.87$, $n = 71$)이 여성 ($M = 2.44$, $SD = 1.06$, $n = 132$)보다 경제상태가 좀 더 좋다고 지각한 반면 ($F_{1,201} = 6.13$, $p < .05$),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M = 2.83$, $SD = 0.84$, $n = 115$)가 없는 경우 ($M = 2.22$, $SD = 1.11$, $n = 88$)보다 경제상태가 더 양호하다고 지각했다 ($F_{1,201} = 20.55$, $p < .001$). 또 주관적 경제상태의 지각은 연령과 부적으로 유의있는 상관을 보인 반면 ($r = -.16$, $p < .05$, $n = 203$), 교육수준과는 정적으로 유의있는 상관을 보였다 ($r = .18$, $p < .05$, $n = 203$).

여섯 가지 영역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을 측정하는 도구에 대

농촌 노인의 생활만족도

해서는 두 명의 여성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아서 201명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노인들 중에서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반응한 비율은 41.8%(84/201)이었는데,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63.4%(45/71)와 여성의 30.0%(39/130)에 해당되었다. 또 여섯 가지 내용들 중에서 어려움이 없는 분야가 한 가지밖에 또는 전혀 없다는 노인들도 남성의 1.4%(1/71)와 여성의 10.8%(14/130)를 차지했다. 곧 남성들은 6개의 영역 중에서 평균 4.99개 영역($SD = 1.53$)에서 어려움이 없는 반면, 여성들은 평균 4.12개 영역($SD = 1.71$)에서 어려움이 없다고 반응했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M = 4.78$, $SD = 1.50$, $n = 115$)가 없는 경우($M = 3.94$, $SD = 1.83$, $n = 86$)보다 ADL이 더 우수함을 보여주었다 ($F_{1,199} = 12.81$, $p < .001$). 또 ADL에 대한 반응은 연령과 부적으로 유의있는 상관을 보인 반면 ($r = -.33$, $p < .001$, $n = 201$, 교육수준과는 정적으로 유의있는 상관을 보였다 ($r = .28$, $p < .001$, $n = 201$). 남녀간의 반응은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다 ($F_{1,199} = 12.82$, $p < .001$). 여섯 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호소한 분야는 “의자에 앉거나 의자에서 일어나기”인 반면, 가장 어려움이 없다고 반응한 분야는 “식사하기”였다.

네 가지 영역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을 측정하는 도구에 대해서는 전체 연구대상자들의 48.3% 정도(98/203)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응답했는데, 이들은 남성의 66.2% (47/71)와 여성의 38.6% (51/132)에 해당된다. 네 가지 영역 중에서 문제가 없는 분야가 하나도 없다는 노인들의 비율은 남성의 1.4%(1/71)와 여성의 6.1%(8/132)에 해당되었다. 곧 남성들은 4개의 영역 중에서 평균 3.23개 영역($SD = 1.22$)에서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반응한 반면, 여성들은 평균 2.48개 영역($SD = 1.40$)이라고 응답하여 남녀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F_{1,201} = 14.37$, $p < .001$).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M = 3.00$, $SD = 1.30$, $n = 115$)가 없는 경우($M = 2.40$, $SD = 1.43$, $n = 88$)보다 IADL에서 어려움이 없는 영역의 수가 더 많았다 ($F_{1,201} = 9.84$, $p < .01$). 또 IADL에 대한 반응은 연령과 부적으로 유의있는 상관을 보인 반면 ($r = -.30$, $p < .001$, $n = 203$), 교육수준과는 정적으로 유의있는

상관을 보였다 ($r = .30, p < .001, n = 203$). 네 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어려움이 없다고 반응한 분야는 “전화하기”인 반면, 어려움이 가장 많다고 호소한 분야는 “버스 타기 등 교통수단 이용하기”였다.

자기존재가치의 지각에 대한 평가에서는 성별 및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성($M = 9.04, SD = 2.02, n = 71$)들이 여성($M = 7.17, SD = 2.23, n = 132$)들보다 자기존재가치를 더 높게 지각한 반면 ($F_{1,201} = 34.60, p < .001$), 배우자가 있는 경우($M = 8.70, SD = 1.92, n = 115$)가 없는 경우($M = 6.69, SD = 2.35, n = 88$)보다 자기존재가치를 더 높게 지각했다 ($F_{1,201} = 44.79, p < .001$). 또 자기존재가치의 지각은 연령과 부적으로 유의있는 상관을 보인 반면 ($r = -.30, p < .001, n = 203$), 교육수준과는 정적으로 유의있는 상관을 보였다 ($r = .46, p < .001, n = 203$).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접촉 빈도를 토대로 측정한 사회적 접촉수준에 대한 반응에서는 두 명의 연구대상자(남 1명, 여 1명)가 함께 살지 않는 자녀가 없다고 해서 201명의 자료만을 토대로 분석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M = 9.45, SD = 2.41, n = 70$)과 여성($M = 9.04, SD = 2.70, n = 131$)의 사회적 접촉 수준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F_{1,199} = 1.18, n.s.$),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M = 9.56, SD = 2.38, n = 115$)가 없는 경우($M = 8.69, SD = 2.80, n = 86$)보다 사회적 접촉수준이 더 높았다 ($F_{1,199} = 5.64, p < .05$). 또 사회적 접촉 수준은 연령과 부적으로 유의있는 상관을 보인 반면 ($r = -.33, p < .001, n = 201$), 교육수준과는 정적으로 유의있는 상관을 보였다 ($r = .24, p < .01, n = 201$).

노인들의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수준

연구대상자들의 생활만족도 점수는 24점 만점에 평균 9.73($SD = 6.14$)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들($M = 8.88, SD = 5.84, n = 132$)이 남성들($M = 11.32, SD = 6.39, n = 71$)보다 생활만족도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F_{1,201} = 7.56, p < .01$),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M = 7.72, SD = 6.06, n =$

농촌 노인의 생활만족도

88)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M = 11.28$, $SD = 5.76$, $n = 115$)보다 생활만족도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_{1,201} = 18.23$, $p < .001$).

한편 생활만족도 수준이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을 보인 결과를 소개하면, 연령과는 부적으로 유의있는 상관을 보인 반면 ($r = -.26$, $p < .01$, $n = 203$),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ADL, IADL, 자기존재가치, 및 사회적 접촉 수준은 모두 정적으로 유의있는 상관을 보였다 (교육수준 $r = .34$, $p < .001$, $n = 203$; 주관적 건강상태 $r = .42$, $p < .001$, $n = 201$; 주관적 경제상태 $r = .53$, $p < .001$, $n = 203$; ADL $r = .53$, $p < .001$, $n = 201$; IADL $r = .41$, $p < .001$, $n = 203$; 자기존재가치 $r = .60$, $p < .001$, $n = 203$; 사회적 접촉 수준 $r = .46$, $p < .001$, $n = 201$).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인의 탐색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의 네 가지 인구학적 변인 및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ADL, IADL, 자기존재가치, 및 사회적 접촉수준의 여섯 개 변인들을 독립변인(예언변인)으로 그리고 생활만족도 수준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열 가지 설명변인들 중에서 어느 변인이 생활만족도 수준을 가장 설명해주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성별과 결혼상태(배우자 유무)는 가변인(dummy variable)으로 처리되었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에 제시했는데, 열 개의 예언변인들 중에서 5개만이 생활만족 수준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섯 개의 변인들이 생활만족도 수준을 설명해주는 정도는 전체 변량의 약 53%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존재가치의 지각이 설명해주는 정도가 가장 높게 드러났으며, 그리고 ADL, 주관적 경제상태 지각, 주관적 건강상태 지각, 및 IADL의 순으로 생활만족도 수준을 설명해주고 있다. 또 생활만족도 수준을 설명해주는 다른 변인들과 달리 IADL은 생활만족도와 상관은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표 1>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 예측에 대한 표준화된 회귀계수

예언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자기존재가치 지각	-.60	-.46	-.32	-.32	-.32
ADL		.33	.31	.23	.45
주관적 경제상태 지각			-.27	-.25	-.25
주관적 건강상태 지각				.16	.17
IADL					-.25
R^2	.36	.44	.49	.51	.53
Overall F	110.42*	78.92*	63.95*	51.24*	43.15*
Overall df	1,199	2,198	3,197	4,196	5,195

* $p < .001$

논 의

본 연구는 농촌노인들을 상대로 그들의 특성을 비롯하여 그 특성들과 생활만족도 수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먼저 그들의 특성들 중에서 자신의 건강상태나 경제상태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보면,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도 좋지 않거나 아픈 곳이 많은 편이라고 반응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거나 경제적인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수록 자신의 입장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비율은 여성보다도 남성에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성규탁(1991), 신은영(1993), 이가옥 등(1994)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건강상태와 관련이 높은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이나 수단적 일

농촌 노인의 생활만족도

상생활수행능력(IADL)에서도 남녀 차가 크게 나타났다. 즉 거의 일상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ADL의 점수가 낮은 여성들의 비율이 남성들의 비율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ADL의 영역 중에서 의자에 앉거나 의자에서 일어서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반응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아픈 곳이 있는가, 얼마나 많이 아픈가 등 건강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한 조사대상자들이 많았던 것과 관계가 깊을 가능성이 있다.

건강이나 경제 상태, ADL 및 IADL의 반응들은 모두 연구대상자들의 연령 및 교육수준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연령이 높은 연구대상자일수록 건강이나 경제 상태의 지각이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교육수준이 높은 연구대상자일수록 건강이나 경제 상태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렇지만 앞에서 건강상태에서의 남녀 차이는 연구대상자들의 상당수가 학교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또 그들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과 관계된다.

자기존재가치의 지각에서도 여성보다 남성들이, 교육수준이 더 높을수록, 연령이 더 낮을수록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의 접촉 수준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빈번하게 나타났는데, 남녀간에는 사회적 접촉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한 사회적 접촉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있는 연구들도 있다 (성규탁, 1991).

연구대상자들의 특성과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를 보면,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보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주관적 건강이나 경제상태를 높다고 지각한 노인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따로 살고 있는 자녀나 이웃들과 자주 접촉하는 분일수록 생활만족도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김재돈·남철현, 1997; 신은영, 1993; 하근영·홍달아기, 1999). 이와 같이 생활만족도와 관계가 있다고 드러난 여러 가지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서 회귀분석을 시도했을 때는 그 중에 일부만이 농촌노인의 생활만족을 설명해주는 의의있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즉 연령이나 성별, 교육수준, 결혼 상태, 및 사회적 접촉 빈도는 생활만족도를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반면, 자기존재가

치의 지각, 주관적 경제 상태의 지각, 주관적 건강상태의 지각, ADL, 및 IADL의 다섯 가지는 생활만족도를 설명해주는 전체 변량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의의있는 변인으로 드러났다. 그 다섯 가지 변인들 중에서도 자기존재가치의 지각이 가장 설명력이 높았는데, R^2 이 .36에 해당되었다.

또 다섯 가지 변인들 중에서도 주관적인 건강 상태의 지각, ADL, 그리고 IADL은 모두 건강과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신은영(1993)이나 Zigler와 Reid(1993)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렇지만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 배우자의 유무가 생활만족도를 예측해주는 주요한 변인으로 드러났던 신은영(1993)의 결과와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를 설명해주는 요인을 탐색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몇 가지 점에서 제한될 수 있다. 우선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측정하지 못한 점들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일이 있는 노인들이 없는 노인들보다 생활만족도의 수준이 높았다는 연구가 있었지만(신은영, 1993),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모두 농촌노인으로 대다수 농업에 종사해온 사람들이어서 직업의 유무를 결정하기 어려웠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연구대상자들의 학력이 너무 낮아서 설문지 문항의 내용을 설명해드려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한 이유로 문항들에 대한 응답형태들이 간격(interval)이나 비율(ratio) 척도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역시 방법론적인 문제로 회귀분석에서 서로 관련이 높은 예언변인들이 함께 이용되면서 공선성(collinearity)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ADL이나 IADL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의 지각은 모두 건강과 관련된 것들로 상관이 높아서 하나의 변인으로 통일되든지 아니면 그 중 설명력이 가장 뛰어난 변인만을 회귀분석에 이용되어야 했다. 그렇지만 53%의 설명력을 지닌 다섯 가지 예언변인들 중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제외하더라도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해주는 세 가지 변인들의 설명력은 49%에 해당된다. 이에 본고의 연구대상자들에게서는 자기존재가치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 즉 노인으로서 대우받고 있는가에 대한 지각이 그들의 생활만족도를 좌우하

농촌 노인의 생활만족도

는 가장 주요한 변인으로 드러났다고 말할 수 있다 (Youn & Song, 1992).

참 고 문 헌

- 김재돈·남철현 (1997).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보건협회지*, 23 (2), 173-191.
- 김태현 (1994). *노년학*. 서울: 교문사.
- 성규탁 (1991). 한국인의 부모부양을 위한 의지와 관행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1 (2), 251-273.
- 신은영 (1993). *농촌노인의 건강상태와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가옥·조애저·오영희 외 (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 장인협·최성재 (1987).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경희·조애저·오영희 외 (1998). *1998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하근영·홍달아기 (1999). 노인의 교우관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노년학연구*, 8, 75-90.
- Bock, E. W., & Webber, I. L. (1972). Suicide among the Elderly: Isolating widowhood and mitigating alternativ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4, 24-31.
- Holahan, C. K., Holahan, C. J., & Wonacott, N. L. (2001). Psychological well-being at age 80: Health-related and psychosocial factors. *Journal of Mental Health & Aging*, 7, 395-411.
- Markides, K. S., & Krause, N. (1979).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older Mexican American: A three generation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40, 390-392.
- Neugarten, B. L., Havighurst, R. F., & Tobin, S.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

134-143.

Palmore, M., & Kivett, V. (1977).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A longitudinal study of persons aged 46-70. *Journal of Gerontology*, 32, 311-316.

Spreitzer, E., & Snyder, E. (1974).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aged. *Journal of Gerontology*, 29, 458-464.

Youn, G., & Song, D. (1992). Aging Koreans' perceived conflicts in relationships with their offspring as a function of age, gender, cohabitation status, and marital statu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2, 299-305.

Zigler, M., & Reid, D. W. (1993). Correlates of changes in desired control scores and in life satisfaction scores among elderly person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6, 135-146.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for the Elderly Persons
Who Reside in the Rural Area**

Kwang-He Park & Hye-Kyung Ha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onam University
Kwangju, Korea 502-791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find out predictors as well as the most powerful predictor that relate to life satisfaction for the elderly persons who resides in the rural area. There were 203 participants in the study, and most of them showed comparatively low levels of education. A questionnaire requesting demographic information, subjective levels of health and economic status,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and instrumental ADL, perceived level of self-esteem, frequency of social contacts, and the life satisfaction was administered individually. It was found that the perceived level of self-esteem was the most powerful predictor for their life satisfaction.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characteristics for the elderly people who live in rural area.

(논문접수일: 2002년 8월 27일)

(수정논문접수일: 2002년 9월 24일)

(논문게재승인일: 2002년 10월 16일)